

입문

상을 지우는 불교 다가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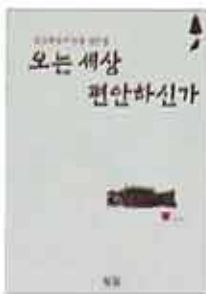
■진연스님의 불교이야기 /진연스님 지음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책을 보아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불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렵다는 마음의 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진연스님(권안 성불사 주지)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경계하며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쉬운 용어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개괄하고 있어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그만인 입문서다. 부처님 일생과 계율, 업, 윤회, 지바, 보살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일상에서의 참선과 화두, 마음 닦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해율, 8,500원 (02)563-0222



에세이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오는 세상 편안하신가 /모심화법사 지음  
 희망보다는 좌절의 쓴 맛을 곁들이는 시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모심화법사는 그 종교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서울에 '영문 4차원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 모심화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마음'을 주제로 인간과 정신의 세계를 조망한 부분도 흥미롭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을 한탄치 말라.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되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다.  
 누림, 7,500원 (02)323-2100



기타

북한문화유적 답사기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지음  
 자기 고한인 사리만 성불사에 꼭 가 보라며 고한 사림과 자람을 늘어놓던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 이 책에는 북한의 문화유적과 사람들의 표정을 따뜻하게 그려 내려간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있다.  
 고구려의 옛모습을 다시 복원의 놓은 경양의 정물사, 묘향산의 보현사와 8각13층석탑 그리고 안심사 상원암, 서산대사의 광광굴 등 불교문화유적과 광양 대성산성, 묘향산, 조선중앙텔레비전탑, 감사의 고구려 벽화무덤 등 북한에 대표적인 문화유적도 저자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만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문화유적을 알기에는 그만인 책.  
 중앙M&B, 9,000원 (02)751-9114



아함경을 통한 불교입문, 방향제시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반영규 지음  
 부처님의 생생한 육신을 통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 구경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가려져 있던 경·장·집성 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삶과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아함경>으로 불교를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불교의 역사와 기본사상, 붓다가 본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수행 등을 주제로 엮어져 있다. 불교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준다.  
 숲바람 7,000원/(02)720-0824



푸른 남자의 '없음' 공부

■푸른 남자의 '없음' 공부 /박재현 지음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쓴 산문집이다. 열한 개의 짧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보고 불교를 생각하고 해체철학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야기에 시작되는 글들은 생황과 불교를 잘도 오간다. 그래서 문학이 느껴지고 불교가 느껴진다.  
 불교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불교가 어떻게 할지를 반성한다. 젊은 열기로 치부하기엔 담담하면서도 냉정한 눈초리가 매섭다.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없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명료하고 깨끗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책의 호를, 불교를 말한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불교이해의 자료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범문스님 지음  
 인간성 상실과 공존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인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범문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연기를 세계관으로 삼는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무아·무소유·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일과 수행의 동일을 강조한다.  
 스님이 이끄는 평화에서 법문한 내용을 엮은 이 책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고 환경 자기실현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말한다. 정도영자와 수행과 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인간에 대한 스님의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다.  
 정도출판, 5,000원 (02)3471-5100



금주의 명저순례

문답속에 숨은 바른 삶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순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분노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덜 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이만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31인 지음  
 사람들은 인과와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지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독차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네 삶에 대한 구원망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과목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를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숲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엮음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청정국토만들기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와 같은 책.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를 비롯해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상구(象圖), 불교의 자연관, 불교사상과 환경보전, 사찰환경보전,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환경교육, 불교의 생명사상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법정, 범문스님을 비롯 목재배 오형근 박성영 연기영 전 재성 교수 등 23명이 감담위원으로 참석했다.  
 아름다운 세상, 17,000원 (02)278-6956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 가르침

■통찰의 체험/현음스님·이금주 공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지도가 골드스테인(J. Goldstein)이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수행을 하는데 안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되 여러가지 수행법을 혼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력을 기울여야 매일 좌선 수행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규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남' '우리'나 '그들'이니 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공의 일체가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매력이다.  
 한길, 5,000원 (0346)574-5585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까사키 지기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축적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정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흥사선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영산재 이해의 교과서

■영산재 연구/범현스님 지음  
 불교의 의례의식인 영산재의 진형은 법패(梵牌)로 불리운다. 불교음악인 법패는 주로 제(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써, 장단과 화성이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줄어들어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맥을 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재의 구성과 법패의 기능, 작법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영산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불교음악의 세계 두 곳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알차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는 학인스님들뿐만 아니라 영산재에 관심있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길잡이 충분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이다.  
 운주사 15,000원 (02)720-9372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모델명	G-2(한화)	4300(삼성)	4200(삼성)	4310(삼성)
크기	125×44×26mm (H×W×D)	116×45×23mm	116×45×23mm	116×45×23mm
무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105g	105g	105g
통화시간	배터리 S 90분 배터리 M 168분 배터리 L 300분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대기시간	배터리 S 26분 배터리 M 48분 배터리 L 87분	120시간	120시간	120시간
사은가격	60,000	115,000	120,000	120,000

신형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016 PCS 최신기종 ·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